

1/8/17

설교 제목: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메세지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이사야 40:1-11

- (사 40:1)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 (사 40:2)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당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절관주](#) 사 35:4
- (사 40:3)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 (사 40:4)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 (사 40:5)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절관주](#) 요 1:14
- (사 40:6)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랴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절관주](#) 렘 2:2, 애 2:19
- (사 40:7)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흐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절관주](#) 사 40:24
- (사 40:8)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 (사 40:9)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절관주](#) 사 25:9
- (사 40:10)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절관주](#) 계 22:12
- (사 40:11) 그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입니다.

성경이 구약 39 권, 신약 27 권 총 66 권인데 이사야서가 전반부 39 장, 후반부 27 장 총 66 장으로 성경의 구조와 똑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장부터 39 장까지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과정,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만 했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인 징벌로 인한 이스라엘의 고통, 메시아의 필요성 등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40 장으로 들어서면 마치 성경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반전되어 66 장까지 메시아의 출현, 회복의 약속, 이스라엘의 찬란한 미래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중 후반부가 막 시작되는 40 장 말씀 앞 부분입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자면 신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자신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희망의 메세지입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보겠습니다.

남 유다는 BC.587 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됨으로써 멸망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 갔고 유대 지역은 바벨론의 식민 지배를 받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어언 50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곧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50 년이란 세월이 지나도록 포로 생활이 지속되자 그들은 점차 지쳐 갔으며 이제는 자신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조차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곳에 정착하기로 작정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벌로 70 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도록 한 후에 용서해 주어 다시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계획을 미리 짜 놓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 뜻을 인지했든 그렇지 못했든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든 것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이제는 지칠대로 지쳐 절망에 가운데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조차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외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은 기쁨과 그동안의 회환이 겹치며 복받쳐 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무겁고 착잡한 마음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고국이지만 돌아가는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님도 알고 있습니다.

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 거기서 먹고 사는 일도 부담입니다.

그래도 바벨론에서 50년을 살면서 겨우 기반을 닦아 놓았는데 공연히 쌓아 놓은 터전만 잃어버리게 될까봐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번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자고 외치는 소리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고국 귀환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1.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사 40:1)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호된 심판을 받아 왔습니다.

물론 그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좌초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으며 음란죄를 비롯해 부도덕의 죄 등등 가지가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다.

그러니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받는 쪽에서는 너무 힘들다 보니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여겨 두려워하며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불쌍하고 측은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비록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그리고 그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징벌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내 백성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새끼인데.....

그들에게 징벌을 주고 그들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 보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라고 이제 회복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의 내용입니다.

(사 40:2)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그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첫째로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판의 형기가 끝나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아래 놓여 있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마귀, 죄, 세상, 저주에 억압된 우리의 인생이 풀려났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전해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를 다 용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에 해당하는 형기를 다 살았다면 그 죄에 대해 자유로와야 합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죄의식을 갖고 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한 계산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스스로 감옥 속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쓴 뿌리로 말미암아 다시 죄의 종 노릇하지 마십시오.

이제 죄 문제에 대해 자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한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2.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사 40:3)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성경은 항상 이중 예언, 즉 지금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 재림의 날에 대한 예언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장래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50 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소망조차 잃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구절은 메시야의 강림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란 메시야의 강림을 준비하며 선포했던 세례 요한을 암시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때가 가까왔다고 외치며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광야나 사막은 거친 인생 길과 수고로운 삶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옥 불 못에서 살아야만 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를 친히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 40:4)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실제로 험난한 광야와 사막을 지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세상에서 권력자와 낮은 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잘난 자와 못난 자 차별이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 40:5)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 모든 사람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3. 인간의 한계과 하나님 말씀의 영원함을 외치라고 하십니다.

(사 40:6)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랴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사 40:7)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했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사 40:8)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인생은 풀과 같이 마르고 들의 꽃과 같이 시든다는 말은 우선은 바벨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인간들을 가리킨 말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근동 지역을 지배하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앞에 모든 나라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누구도 바벨론이 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리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0 년 후 바벨론은 바사에게 멸망함으로써 이 일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또 인생은 풀과 같이 마르고 들의 꽃과 같이 시든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인간 모두를 가리킨 말입니다.

인생이 잘난 것 같지만 풀이나 꽃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생이 짧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고 생각과 판단이 제한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는 양 착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쓸어 버리시면 순식간에 말라버리는 풀이나 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반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은 지은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반드시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인간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4.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소리 높여 힘써 외치라고 하십니다.

(사 40:9)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에 대한 소식인 복음을 두려움없이 담대히 소리높여 널리 전하라고 하십니다.

(사 40:10)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사 40:11) 그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메시아의 오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첫째, 메시아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용사로 나타나셔서 원수 마귀를 단칼에 물리치실 것입니다.

둘째,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셋째, 의로운 자, 충성한 자, 하나님을 위해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은 자에게 상급 주실 것입니다.

넷째, 악한 자, 게으른 자, 부정직한 자, 변절자에게 보응하실 것입니다.

다섯 째, 선한 목자로 오셔서 그의 양들을 먹이시고(구원하시고)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젖먹이는 암컷들 (교역자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일점일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담대하게 소리 높여, 소망을 잃고 절망 중에 헤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